

디지털타임스 뉴스인쇄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11402011676650003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기술 빛났다

안경애 기자 naturean@dt.co.kr | 입력: 2013-11-13 20:36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미래부 기초·원천기술 이전 조인식'에서 강훈 연구개발성 과지원센터장(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이근재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R&D 대전’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신기술이 연구실과 시장간에 놓인 ‘죽음의 계곡’을 넘어 산업체에 이전됐다. 과학기술 R&D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성공사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R&D 대전’에서 부처 지원 하에 결실을 맺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 8건을 기업에 이전하고, 15건은 기술이전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전되는 기술은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지원 등 기초연구사업과, 21세기 프론티어, 글로벌프론티어 등 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들이다.

채종서 성균관대 교수는 세계 최소 규모의 전자동 의료용 원형가속기를 개발, 측정장비 업체인 에이치엠티에 6억원에 기술이전했다.

원형가속기는 암, 뇌종양, 치매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장치로, 기존 외국산 장비는 가격이 비싸고 크기가 커 중소규모 병원에서 채택하기 힘들었다.

채 교수가 개발한 원형가속기는 지름 1.25m로 기존 제품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고, 가격도 15억~20억원을 호가하는 외산제품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다.

김성훈 서울대 교수는 고혈압 및 부종 치료제로 쓰이던 벤즈티아자이드가 폐암 진행에 영향을 미치

는 `CA9'라는 효소의 활동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폐암 항암제 후보물질로 발전시켜 보령제약에 3억원에 이전했다.

발달한 바이오기술과 IT기술을 활용, 기존 약의 숨겨진 효능을 재발견하는 방법은 경제적이고 성공확률이 높은 신약개발 방법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세광 포스텍 교수는 다당류의 일종으로 세균 침입이나 독물 침투를 막는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이 간 조직에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특성을 이용, 여기에 항바이러스성 단백질인 인터페론을 담아 전달하는 새로운 C형 간염치료제를 개발해 신풍제약에 이전키로 하고 세부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이 치료제는 치료 효능이 일주일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치료효능이 기존 주사제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화에 성공하면 약 4조원 규모의 폐길화 인터페론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밖에 조철희 충남대 교수는 화력발전소나 시멘트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 정제하는 데 쓰이는 `중공사 무기질 분리막 제조기술', 김필 가톨릭대 교수는 유기성 철분제 기술, 김도만 전남대 교수는 올리고당 건강음료 제조기술, 김근중 전남대 교수는 NADPH(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인산) 측정법을 각각 파인텍,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창조바이오텍, 메디센서에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미래부가 지난 7월 기초원천 연구사업 성과 중 74개 사업화 유망기술을 선정해 사업화 컨설팅, 수요기업 발굴 등을 집중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래부는 74개 중 10여개 기술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모델 설계, 시제품 제작 등 기술별로 2년간 최대 4억원을 후속 연구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예산을 6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기술을 74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이근재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은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과 사업화 역할을 강화해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산업계로 이전돼 신규 고용과 수익창출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력시간: 2013-11-19 19:01:04